

복음이 이긴다 (누가복음 10:1-20)

오늘도 우리는 언약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언약을 잡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다. 그냥 은혜 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잡고 예배 드림으로 흑암을 꺾어야 한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너져야 한다. 사단의 역사가 끝이 나와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예배를 그냥 와서 은혜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전쟁을 해서 흑암을 꺾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사명이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진짜 문제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예배 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 때,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음이 이긴다는 것이다. 믿는가? 복음은 이긴다. 다르게 아니라 복음이 이긴다. 다시 한번 이것을 언약으로 믿고, 이것을 잡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이긴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는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마음과 언약을 드려야 한다. 이것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것이다. 결론은 이미 나와 있기에 이야기는 간단하다. 이미 결론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간단하다는 것이다. 복음으로 살면 정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예된다. 정복했다는 것은 이미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갈등과 씨름으로 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하고 씨름이 된다는 것은 원가 틀린 것이다. 다시 한번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예배를 드리는 언약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은 정복이고 해방일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이다. 복음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다. 다른 것을 계속 기도하는 것은 복음 옆에서 숙고 있는 것이다. 복음이 내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도 괜찮다는 것이 마태복음 6:33이다. 오렐라 니가 그것만 하는데 너의 필요한 것은 내가 다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다. 복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다. 복음을 누려야 하나님이 누리진다.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 복음을 누릴 때.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도 맡기고 응답도 주신다.

큰 사업을 하는 회장이 아들이 여럿이 있다면 그 사업을 누구에게 주겠는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 아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 아들들 중에서 준비된 사람,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아버지의 일을 이어갈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아무 준비 없는 아들에게 절대 주지 않는다.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이 통하면 가만히 있어도 주는 것이다. 기도 응답도 똑같다. 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통하나? 그리스도를 누려야 통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길인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복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뜻도 알고 자연히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한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 안 한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과 마음이 안 통했던 것이다. 그래도 야곱을 버리지 못하고 축복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언약을 야곱에게 주었기 때문에. 야곱은 사람은 그래도 언약을 잡고 있었다. 우리도 그렇다. 이 언약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누리면 계속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다른 기도가 필요 없다. 그냥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냥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을 많이 누리려고 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해야 한다. 기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복음안에서 기도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통할 길이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잡고 승리하고 정복하는 예배 되기 바란다. 그냥 은혜 받는 것이 아니다. 언약을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흑암세력을 이기는 것이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언약되어지기 바란다.

1. 복음이 이긴다.

당연히 복음이 이긴다. 복음이 이기기 때문에 전도가 이긴다. 오늘 본문 기록이 그렇다. 1절을 보면 주님은 사도들을 위해 70인 제자들을 세웠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 지역 전도의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 전도의 한 분야를 책임진 사람들이다. 사도와 같은 일을 하되 사도는 아닌 제자들이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달한 발람집사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전체의 복음을 주도한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순교당한 스테반집사 같은 사람들이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중요한 교회이다. 그 교회의 영적인 기초가 된 사람이었다. 그 당시에도 핍박은 아주 심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함께 주셨다.

본문 19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주셨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다. 그래서 너희를 해칠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다. 그리고 당연히 18절 말씀처럼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고 하셨다. 땅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사람이 생명 얻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하니까 사단이 난리가 난 것이다. 복음을 전하니까 흑암이 무너지고 자기 나라가 깨지니까 비상이 걸린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복음의 권세이다. 믿어야 한다. 복음이 증거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안 무너지는 일은 절대 없다. 시간표는 우리 맘대로 안되지만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다. 시간표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핑계가 아니다. 예전에 나도 핑계 비슷하게 썼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축복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절대 이 언약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복음의 권세고 그리스도 권세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이것으로 세상을 이길 권세를 믿어야 한다. 반드시 사단은 무너지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이긴다. 다른데 갈 필요가 없다. 복음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다. 무슨 문제든지 복음이 다 해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근본은 사단이기 때문에 그 머리를 박살내야 한다. 우리는 이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영적 그림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다. 사람의 죄가 아니다. 죄가 맞다. 원죄 때문이니까. 그러나 원죄의 원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런 영적 눈 없으면 오직 예수 안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언약 잡아야 하고 전쟁해야 한다. 누가 사단을 이길 수 있고 무엇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가? 전세계 원자폭탄 다 터뜨려도 사단은 아무 관계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 그 날 저녁 그 언약의 피가 사단을 초토화 시켰다. 참으로 놀랍다.

출애굽기 12:12절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쳤다고 하셨다. 그 나라의 장자가 하루 저녁에 다 죽었다. 소나 돼지나 그 땅에 처음 난 것은 그날 다 죽었다. 만일 미국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난리 날 것이다. 여기저기 비상이고 난리 법석일 것이다. 그리고 그 신들도 내가 다 심판할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그대로 되었다. 창세기 15:14절에 이것은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인데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36절에 보면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날 이스라엘사람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쳤다. 그리고 그 물품을 다 가지고 나왔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의 당연한 권세이다. 그 약속의 피는 사단의 나라를 꺾는 것이다. 그 약속의 피를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해서 꺾는 것이다. 그 신들도 심판할 것이라고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유히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당연히 노예에서 해방이고 그냥 해방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는 것이다. 언약으로 잡아야 한다. 이것을 기도시간이 고백하고 언약으로 고백하고 잡아야 한다. 하나님 그날 저녁 그 언약의 피를 나의 언약으로 잡습니다. 내게 역사하는 사단의 나라를 초토화 시켜 주세요. 이 모든 귀신을 심판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이고 모든 노예된 것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로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하게 해주세요. 기도 아니라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기도이다. 나는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음부의 권세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사실 아담니까? 내가 저도 이 권세는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천국 열쇠를 주고 하나님 축복해주세요.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잡고 심어야 한다. 계속 반복해서 각인해야 한다. 체질되게 해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 뿐이다. 모든 것이 영적 문제이고 사단이 이유인데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선언이다. 사단이 이유야. 그래서 사단을 죽이려고 내 아들을 보냈다. 우리가 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매치가 안되는 것이다. 이것이 매치가 안되면 우리는 다른 데서 사는 것이다. 고쳐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이것 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것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해야 되고 계속 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해야 되고 되고 난 뒤에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사단이 우리 앞에 기도 안해도 무릎 꿇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겠나? 답을 주셨다. 이 답은 완전한 답이다. 이것만 되면 끝이다. 할 일은 이것 뿐이다. 이것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바란다. 복음이 이긴다. 다르게 아니라 복음이 이긴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이기고 정복한다. 다른 것을 할 이유가 없다. 다시 한번 이것이 언약되기 바란다.

류목사님 메시지에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서든 살아 남을 수 있다고 하셨다. 어째서 그런가? 그 기도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일 때 그렇다. 복음과 상관없이 소리 지르는 기도로는 안 된다. 복음 안에 있는 기도인가? 복음을 누리는 기도인가? 왜 복음을 누리면 되는가? 복음이 답이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답으로 주었으니까 그래서 되는 것이다. 답 아니면 안 된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 언약 깊이 되기를 축원한다.

2. 70인 제자

그 지역을 책임지는 제자이다. 하나님 앞에 나는 70인 제자다 이 말 나올 수 있기 바란다. 하나님은 그냥 제자들을 현장에 보낸게 아니다. 3절에 보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하셨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권능을 주셨다. 4절에 아무것도 가져갈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는 전도자니까 그럴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고 배낭도 필요 없고 신발도 필요 없다. 그리고 누구에게 말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5절에 어느 집에 가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평안을 빌으라고 했다. 전도자의 권세이다. 이런거 저런거 말할 필요 없다는 것이다. 그냥 아무집이든 가서 평안을 빌어라. 거기에 평안을 받을만한 자가 있으면 그 평안이 가고 아니면 너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 7절에 보면 너희를 받아들인 자가 있으면 그 집에 있으라고 했고 거기서 당당히 먹고 마시라는 것이다.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눈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최고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 눈에 진짜 일꾼이다. 그러니 마음대로 먹어라. 그리고 이 집에서 저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눈치보지 말라는 것이다. 당당하게 해라. 너는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 것이다. 8-9절에 보면 어느 동네든지 너희를 영접하면 거기 차려놓은 것을 먹으라고 하셨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라. 환자를 고칠수 있는 권세가 복음에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 권세가 있다. 그 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말이다. 믿음으로 해야 한다. 전도자들중에는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복음을 받고 병이 낫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다른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하셨다. 10-11절은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는 동네에 대해서 말했다. 그 때는 발에 묻은 먼지도 털어 버려라. 너희 동네에서는 먼지도 가져가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 하나님 나라는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주이다. 그러면 그 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쉽다고 하셨다. 놀라운 권세를 전도자에게 주신 것이다.

전도는 구걸하는게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라는 것도 아니다. 겸손하지만 속에서 당당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내 인생적 전도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무기로 주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박살내야 한다. 그리고 권세와 권능도 주시고 하늘 군대의 약속도 주셨다.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도 주신다.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전도자 되어야 한다.

개인에게 질문해보라. 나는 전도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이 일 외에는 다른 관심 없기 때문이다. 가장 관심 있는 여기에 내가 연관이 없으면 어찌 되는가?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전도와 관심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얼마전에 자기칼리에 있는 신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다 온 일이 있다. 거기서 아리조나 피닉스에서 온 어떤 장로님과 성도들을 만났다. 그래서 그 학장님이 그분들이 13년째 매년 졸업식때 와서 저녁식사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마리오 전도사님과 만났다. 그래서 서로 소개도 하고 전화번호도 받고 하라고 했다. 왜냐하면 피닉스에서 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실 복음 누린다고 살아왔는데 미국 교회에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것이 20여년이 되었는데 제대로 된 영어권 목사님 한분도 없다.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첫째 책임은 저에게 있지만, 어떤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지 몰라서 연락처를 받았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화상으로 그 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를 했다. 우리는 이런 교회라고 말하고 목사님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사역을 하는지 알고 싶다고 물어보며 대화했다. 이분들은 콜롬비아 출신이고 장로교회이다. 지금은 스페니쉬로 사역하는 교회이다.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콜롬비아의 신학교와 일반대학교에 많은 연결이 있었다. 그리고 과테말라와 멕시코에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분과 함께 선교하라는 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모님은 네이티브 인디언 목사님 그룹의 회장이라고 한다. 우리가 아리조나를 생각하면서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인디언 원주민 선교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좀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잘 안되었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6월 중에 거기, 연결된 분들에게 원하는 분들을 피닉스에 모셔서 일주일정도 한숙훈련을 할까 생각하고 있다. 복음과 함께 많은 것들이 전달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사모님이 그 교회에서 악기를 가르친다고 한다. 한 16명 정도,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을 가르친다고 한다. 그래서 거기에도 악기 뿐 아니라 복음도 전달하면 중요한 문이 될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많이 모자란다고, 바이올린 선생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 장유진 집사 이야기도 하고 그랬다. 우리 임마누엘아리조나 교회는 지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와 관련이 있고 그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거기 보낼 만한 분이 없고, 영어권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혼자 생각에 다윗 전도사가 돌아오면 거기 보낼까 생각했다. 우리 교회도 너무 필요하다. 우리 렘넌트,

다민족을 위해서 적어도 두사람 정도 확실한 교역자가 필요한데, 그래도 아리조나에서 LA를 보면 여기는 일꾼들이 많고 거기는 기본 적인 사역자도 없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 전도사는 성령인도 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언제 올지도 모른다. 나도 관여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이다. 사람으로 치면 내 아들이 아니라 류목사님 아들같다. 김홍호 선교사님이 거기서 사역을 잠시 했는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상의한 적이 있다. 그 때는 저도 답이 없고 어려웠기 때문에 도울수 없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를 깰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우진 못해도 있는 교회를 깨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좀 돕는다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다. 앞으로 그곳에 사역의 문이 커지고 인디언 보호구역에 복음의 문이 열리면, 우리는 한척이 없었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리조나에 교역자를 파송해야 할 이유가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도 더 큰 것으로 장만해야 한다. 지금은 집에서 한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큰집이나 넓은 땅을 구해서 우리 렘넌트들이나 관심있는 성도들이 함께 갈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코로나 끝나면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확인해 가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아리조나에 성도들과 자주 만나고. 이 분들이 보면 목회자가 없어서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래서 자주 LA만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도 부탁드릴 것은 리카르도 목사님 그 제자중 하나 가브리엘 목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로스 카보스라고 하는 곳에 12일부터 18일까지 사역을 할 것이다. 거기도 굉장하 넓다. 로스 카보스와 라파즈라는 도시 두곳을 다니면서 교회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할 것이다. 기도해주시기 바란다.

우리는 전도자이다. 전도자로 살아야 한다.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한다. 답이 있는가? 답을 전하는 전도자인가? 아니면 깨끗이 복음 선포하고 돌아오는가? 아니면 끝까지 그 사람들 손에 복음을 손에 쥐어 주고 오는가? 혹시 공중에 뿌리고 올 수도 있다. 그 답을 손에 쥐어 쥐야 한다. 다른 종교는 손에 잡아주는 것이 없다. 불교는 108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불교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하 답이 된다. 3천배도 그렇다. 남묘호랑개교도 답이 있다. 이게 계속하면 역사 일어난다는 것이다. 무당은 부적을 써준다. 이것이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도 믿어진다. 모슬렘은 무조건 하루 다섯 번 기도한다. 우린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진짜로 선포하고 진짜인데, 뭔가 이런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선포하지 않다. 너무나 바르고 중요한데 이것이 뭔가 선포하지 않고 그렇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이다. 우리도 분명하다. 그리스도. 그런데 잘못하면 혼미해질수도 있고 뭔가 흐리다. 어려울수도 있고 감이 안 잡힐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보고 교육지책으로 만든 것이 언약기도이다. 잘 누려지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다. 깊이 누려지만 그 기도가 쓰는것보다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될 때까지만 쓰면 된다. 확실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계속 잡아야 하고 죽을 때까지 잡아야 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은 분명한데 손에 잡은 언약이 없어서 방황한다. 방황이라기 보다는 자리를 영적으로 자리를 잡고 앉지를 못한다. 이것이 잘 안되는 것이다. 사단이 발악을 한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했는가? 두말할 필요 없다. 이들에게 복음을 담으로 주지 않으면 전도는 힘들다. 복음이 힘이 없다. 이것이 답이라는 소리를 못하면 끝까지 가지 못한다. 복음 외에는 답이 없으므로 잘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할 것은 복음이다. 복음을 담으로 줄수 있으면 전도와 선교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 되면 그 다음 할 것이 전략이다. 전략을 통해서 눈을 크게 떠야 한다. 큰 전도를 생각해야 하고 세계 복음화를 생각해야 한다. 그런데 항상 내용과 중심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답을 주면 전도와 선교는 실패하지 않는다. 스스로 될 때까지만 이 복음 전달해서 되어지기만 하면 이제는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일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것을 그런 사람을 보낼 수 있다. 보내고 난 뒤에도 뒤 안 돌아봐도 된다. 그리스도를 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답을 전하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나면 그들이 필요한 것이 답이기 때문이다. 전부다 답이 필요하다. 우리도 그렇다. 답이 필요하다. 답이 있는데 그 답이 답이 안되서 갈등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두가지 답을 주셨다. 첫째는 지옥 안가는 답이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첫째 답이 구원이고 두 번째 답이 기도응답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하셨다. 이 언약의 피를 두가지 답으로 이해한 사람, 그 사람은 실질적인 증인이 될수 있다. 맞는지 확인해보고 여기에 답 가진 사람이 다 되기 바란다.

복음이 이긴다. 잊으면 안된다. 다르게 아니고 복음이 이긴다. 그리고 또 하나 복음은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이겨야 한다. 사단이 우리를 이기려고 한다. 이것만 없으면 우리가 이기고 말고 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사단은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한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한주간 되기 바란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이다.